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집 고쳐주기 113가구 봉사활동 마쳐 농어촌 집 고쳐주기 운동 새로운 브랜드 선포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성과보고회 및 브랜드 선포식」을 12월 15일(화) 한국농어촌공사(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성과보고회에는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 봉사자, 후원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재)다솜동지복지재단(정영일 이사장)은 농어촌의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 113가구에 대한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활동 추진성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금년도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원봉사자(35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였다.

금년도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에는 17개 대학의 자원봉사자(265명),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등 900여명이 참여하여, 지난해(38가구)에 비해 대폭 확대한 113가구에 대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과보고에 이어 새로 개발한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브랜드(Brand Identity)를 선포하였다.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이미지를 더욱 확산하고, 전 국민 참여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브랜드(네임·슬로건·심볼)를 개발하였으며,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하여 「농어촌 집 고쳐주기 운동」을 농어촌의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이 어려운 가정에 희망을 주는 운동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은 (사)한국농촌건축학회(윤충열 회장)와 협력하여 농식품부의 지원금(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과 재단회원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2007년부터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와 (재)다솜동지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날 브랜드 선포를 계기로 봉사활동 참여회원을 확대하고, 재단의 안정적 운영기반도 조기에 확보하여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기술 개발(R&D) 추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인접국가에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재발 및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하여 신속진단법, 백신개발 등 방역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중국, 대만,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 세계구제역연구연합 등과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제역 신속진단을 위하여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형과 Asia1형에 대한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함으로써(2009.2월) 앞으로 국내유입 방지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제역 O형 진단키트는 개발 완료하여 진단에 활용하고 있음.
구제역 상재지인 베트남과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영국의 세계구제역표준연구소와는 지속감염 억제물질 개발을 추진하여 구제역 지속감염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구제역연구연합(GFRA)에 가입하였고(2009.9월),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2010.1월)하여 구제역 전문가와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국내 유입방지 및 유입 시 초동방역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법 및 예방기술을 개발하여 조기검색·예찰에 활용하고 있다.

HPAI 방제를 위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신속 간이 진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2004.12) 조기검색 및 예찰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체검출법(C-ELISA)을 개발·보급하여 HPAI 방역에 활용하고 있다. 신속 간이진단법은 농장에서 20분 이내 진단이 가능하므로 초동방역에 이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방역에 일조하고 있다.

HPAI의 재발로 인한 전국적 확산에 대비하여, 유전자 재조합(reverse genetics) 기술을 이용한 백신제조 기법, 새로운 진단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역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국내 양돈장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돼지 전용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및 진단키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수출양돈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돼지열병을 청정화하기 위해 2002년 재발생 이후 유전자재조합 백신, 신속검출 유전자 진단키트 등 돼지열병 근절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백신접종 및 야외 감염된 돼지를 혈청학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유전자재조합마커백신과 감별진단키트를 개발 완료하였으며(2009.8월), 앞으로 기존백신 및 진단방법을 대체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역기술을 활용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돼지열병 청정화요건을 충족시키고, 2015년까지 청정화 목표를 달성하여 국내 양돈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역원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청정화 유지와 돼지열병의 조기근절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식품 신속 회수 체계 및 정보 공개 강화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SMS메시지, TV자막 등을 연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내년부터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TV자막 광고, SMS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연계하여 위해식품 신속 회수 및 정보 공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선 기관에서 식약청 긴급통보시스템에 긴급 회수가 필요한 부적합 검사 결과를 통지하면, 전국의 관련 기관과 유통매장, 문구점 등 중·소규모 판매업체, 소비자 등에 TV자막 광고, SMS 문자메시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우선, 금번에 도입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하여 인증된 판매 매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위해식품의 판매가 차단되고, 현재 5개사 8,771개 인증 매장(1일 이용객 500만명)을 지식경제부,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다른 대형매장과 중소형 슈퍼마켓(내년말까지 1,000개소)까지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멜라민 사건과 같은 전국 단위 동시 수거·검사 현황 관리를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1일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위해식품 정보와 긴급회수 요청을 관련 기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학교 주변 문구점 등 중소규모 판매업체(18,000여개소)에 SMS 문자메시지로 동

시 전파하여 신속히 회수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위해식품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위해식품 회수 정보가 정규 방송 TV자막을 통해 소비자와 언론 등에 제공되며, 식약청 홈페이지와 16개 시·도, 6개 지방식약청, 230여개 지자체, 10개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홈페이지에도 위해식품 관련 회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제공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정부와 제조회사, 유통업계, 판매점, 소비자 등이 함께 협력하는 위해식품 유통 차단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

산림청과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2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산림청과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정광수 청장을 비롯 운영균 산림자원국장과 관계자들, 연구원은 오세익 원장과 부서장, 산림정책연구실 직원들이 참석해 2건의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석현덕 산림정책연구실장은 '산림정책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임업여건의 변화와 임정비전, 비전 실현의 기본방향과 목표, 핵심전략과 실천과제로 나눠 발표했다. 석 실장은 임정비전을 '녹색미래 · 그린토피아 실현' 이라 제시하며, 산림의 다원적 기능, 국토보전 · 산림수요 충족, 산림산업 국내외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4대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장철수 연구위원은 '산림정책 변화와 연구 방향' 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정책수요는 국토녹화에서 목재생산, 다목적 산림자원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향후 추진할 주요 과제를 4대 기본목표에 맞춰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제안했다.

산림청 정광수 청장은 연구원이 앞으로 임정을 이끌어 가는 연구,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 주길 당부했다. 오세익 원장은 더욱 선제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농협 · 농식품부, 'GAP 인증 농산물' 판촉행사 21일부터 23일까지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판촉 행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안전한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GAP인증 농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하였다.

※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생

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GAP 인증 농산물 시식 및 GAP 농산물 구매고객 경품 증정, GAP제도 홍보 및 GAP 농산물 무료증정 이벤트 등이 3일간 열렸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는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별도의 GAP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GAP인증 농산물은 재배단계부터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가 유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농산물로 수확 후 판매단계까지 지정된 시설에서 선별·포장되고 생산이력도 기록·관리된 공식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다.

그동안 쌀, 보리, 콩, 사과, 배 등 재배면적이 많은 주요작물 105개 품목에 한정하였으나, 지난 11월 24일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이 GAP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는 2006년 3월 GAP민간인증기관 1호로 지정 받았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GAP인증기관으로 148명의 GAP인증심사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협의 조직망을 통해 11단계의 절차를 통해 GAP심사와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3%수준에 불과한 GAP 농산물을 2012년까지 10%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GAP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최근 GAP 인증 대상품목 확대, GAP 시설기준 완화, 관리시설 경유 예외품목 지정 고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향후 GAP 인증에 필요한 작물별 재배지침의 보완 등 GAP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

부터는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병원성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GAP를 본격 시행(농산물품질관리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인증

HACCP기준원



국립진주산업대학교와 MOU 체결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석희진)은 12월 4일(금요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국립진주산업

대학교 대강당에서 국립진주산업대학교(총장: 김조원)와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발전과 위생 관련 정보의 상호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교환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학술,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교환 ▲위생관리 및 위생검사의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위생관리기법 개발 등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축산물HACCP에 관한 교육관련 업무 협조 ▲기타 상호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로서 축산물HACCP기준원은 전문적인 축산위생 관련 기술연구는 물론, 내년이면 개교 100주년의 우

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진주산업대학교의 지속적인 정보와 업무 교류를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HACCP기준원의 석희진 원장과 국립진주산업대학교의 김조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두 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HACCP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수산물유통공사



5년 연속 최우수기관, 3년 연속 준정부기관 중 1위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총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금품·향응제공을 또한 3년 연속 ‘제로’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aT는 5년 연속 국가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3년 연속 준정부기관 중 1위를 달성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T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48점으로 작년보다 0.23점이 상승해 최고점을 받았으며, 특히 내부청렴도가 0.31점이 상승해 종합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그 동안 e-감사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방감사, 청렴혁신 실천리더들의 활발한 활동과 청렴정책 실천력 제고, 책임감찰제를 통한 취약부서 수시 점검체계 구축, 고객만족제도 운영을 통한 고객불만 해소 등 aT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정책 꾸준히 실천해왔다.

aT는 앞으로도 청렴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

히 유지하기 위해서 ‘Global 청렴·윤리기업 aT’라는 비전을 목표로 하는 한편, ‘Clean aT’를 공사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감사업무 중장기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aT 감사인 감사는 “이번 성과는 모든 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청렴마인드를 유지하고 노력한 덕분”이라며 “aT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기관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창사 101주년 기념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8일 경기도 의왕시 본사에서 국회의원, 농어업

단체장, 공사 임직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사 101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홍문표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사는 지난 1세기 동안 식량자급기반 확보와 농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사장은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공사로 발전하기 위해 6천여 임직원과 고통 분담한 결과, 314개 공기업 중 으뜸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직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홍 사장은 향후 공사는 자립형 공사로 성장하기 위해 이미 예산과 10년 동안의 할 일을 확보해 효율적인 공사로 거듭날 것이며, 농어민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기 위해 현장을 이해한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